

# 공동제작협정서

요약

## Accord de coproduction

## France-Corée

Résumé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안녕—프랑스: 프랑스로케이션 지원제도 소개

공동제작협정서

안녕—프랑스

Hello-France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2006년 공동제작협정서에 서명하였다.

## 자격 기준

---

- 영화관에서 첫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장편극 영화를 기준으로 한다.
- 제작사 간 상호 공동 제작 계약을 맺어야 한다.
- 해당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KOFIC)와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영화 제작팀은 한국,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어야 한다.
- 각 국가의 공동 제작자는 각각 작품 최종 제작비의 최소 20%의 재정적 기여와 영화에 투입된 기술적, 예술적인 부분에 20%정도 기여해야 한다.
- 각 공동 제작자는 작품의 유형 및 무형적 요소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된다.
- 공동제작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예고편 및 홍보 자료에는 공동 제작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 혜택

---

공동 제작된 작품은 각 제작자의 국가에서 자국 영화로 간주된다.

- 프랑스 국내 시장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
- 두 국가에서 각각 가능한 지원 시스템에 접근 가능 (아래 세부 사항 참조).

## 프랑스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과 재정 조달원

---

### 제작과 배급에 대한 자동 지원

프랑스 제작자와 배급사는 프랑스 극장, 비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영화의 흥행에 비례하여 자동 지원을 받는다.

심사 기준의 점수에 따라 영화에서 프랑스 요소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며 제작자나 배급사의 차기작에 대한 지원으로도 재투자 될 수 있다. 2019년에는 영화 제작자가 6,250만 유로를, 배급사가 2,250만 유로의 재투자를 받았다.

### 제작에 대한 선별적 지원

- 시네마 뒤 몽드: 2020년에 540만 유로의 예산이 외국 감독이 자국어로 촬영한 영화, 외국 감독이 촬영 국가의 언어로 촬영한 영화와 외국어로 촬영한 프랑스 영화에 지원되었다.
- 선지급금: 2019년에는 주로 프랑스어로 촬영된 영화 즉, 영화의 50% 이상이 프랑스어로 촬영된 영화에 대해 2,500만 유로의 예산이 선별적 지원의 혜택을 입었다.
- 디지털 이미지 및 음향 기술을 사용한 창작품 지원: 2019년에는 프랑스에서 시각 효과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영화에 980만 유로를 지원했다.

- 배급에 대한 선별적 재정 지원: '미개봉 영화', '고전 영화', '젊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 영화' 등 3가지 지원이 있으며 총 예산은 2019년에 1,900만 유로를 지원했다.
- 지역별 제작 지원: 2019년 34개의 지방 당국(지역, 수도권 등)이 2,125개의 프로젝트에 8,300만 유로를 지원했다.

#### 텔레비전 서비스, 공동 제작, 또는 사전 구매에 의한 투자

프랑스 TV 채널은 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프랑스 국적의 영화와 주로 프랑스어로 촬영된 유럽영화에 투자해야 하며 2019년에는 171편의 영화에 2억 7300만 유로를 투자했다. 프랑스 TV채널들은 본 계약에 의거해 제작된 영화와 프랑스 국적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SOFICA(영화 산업 투자 조합)

SOFICA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제작사들에게 제작비를 투자하는 프랑스의 공적 제도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하는 작품의 다양한 배급 경로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2019년에는 63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모금했다. SOFICA는 프랑스어로 된 유럽 영화에 투자하거나 유럽 국가로 공동 제작 국가중 메이저 국가의 언어로 제작되는 작품에 자금의 20%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 미니멈 개런티 상영권 개봉, 비디오 출시나 VOD 또는 국제 판매

미니멈 개런티는 영화를 극장이나, 비디오 또는 해외에 판매할 권리를 갖기 위해 배급사 또는 해외 배급사가 투자한 민간 자금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영화의 감독, 출연진 등을 고려한 예상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선 지급금으로 최소로 보장된 수익이다.

### **한국내 지원 제도**

---

#### 로케이션 인센티브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기획, 개발하여 제작하는 장편 극영화, TV시리즈, 다큐멘터리와 같은 외국 영상물로 외국 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국내 관광 유발, 영화 산업 분야의 비용 창출 등 경제 제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 내역은 국내 촬영일 3일 이상, 국내 집행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집행 비용의 25%까지 지원되며, 국내 촬영일이 10일 이상, 국내 집행 비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한국의 제작사로 지불한다. 이 지원 정책은 정해진 지원금내에서 집행된다.

2020년 8억원 책정.

### 자동 제작 지원

한국 영화 기획 및 개발 지원: 한국 제작자들은 극장, 비디오(DVD 및 VOD) 및 TV에서 영화의 성공에 비례하여 예산 한도내에서 자동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화 상영 후 흥행 정도가 점수로 매겨지며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2020년에는 15억 7000만원 책정.

### 제작전 영화에 대한 선별적 지원

독립 영화 지원의 경우, 한국 제작사가 요청하는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영화의 대사가 꼭 한국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감독도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원금 신청자는 한국인 혹은 한국 제작사이어야 한다.

2020년에는 42억 4600만원 책정.

### 제작중인 작품에 대한 선별적 지원

촬영 공간 지원 제도: 한국 제작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스튜디오와 같은 촬영 공간에 대한 지원.

2020년에는 20억 2000만원 책정.

### 배급에 대한 선별적 지원

독립영화 개봉시 지원: 60분 이상의 영화의 배급을 위한 마케팅(P&A) 비용 지원.

2020년에는 28억 3000만원 책정.

### 지역 영상위원회의 선별적 지원

서울, 부산, 인천 등 각 지역 영상위원회에 따라 각각 경제적, 예술적, 지역의 가치 등의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경우에 따라 로케이션 스카우팅에 대한 지원이나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영상위원회의 경우 2020년 5억원 책정.

### 영상전문투자조합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치하여 한국영화 산업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464억원 유치.

### 미니멈 개런티 상영권 개봉, 비디오 출시나 VOD 또는 국제 판매

미니멈 개런티는 영화를 극장이나, 비디오 또는 해외에 판매할 권리를 갖기 위해 배급사 또는 해외 배급사가 투자한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영화의 감독, 출연진 등을 고려한 예상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선 지급금으로 최소로 보장된 수익이다.

## 한-불 공동 제작 협약에 따른 합작 영화

제목	감독	제작 연도	프랑스 제작사	한국 제작사
여행자	우니 르꽁트	2009	Gloria Films	나우 필름
두만강	장룰	2010	Arizona Productions	롤필름
마담 B	윤재호	2014	Zorba Production	Su:m

## 연락처

프랑스 로케이션 문의: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영상교류팀

한국어·프랑스어·영어 가능

hello-france@kr.ambafrance-culture.org

02.317.8511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원하시면,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 문의해 주십시오.